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관계 변화는 2025년 국제질서 변화에 가장 큰 변수이다. 실제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 차단) 시행, 트럼프의 60%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공약 등 미중 관계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메가톤급 이슈가 널려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 달 동안 미중 관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트럼프 취임 전부터 그 조짐이 있었다. 트럼프는 당선자 시절에 이미 1월 19일로 예정된 틱톡 관련 법안의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당일인 1월 21일 법안 시행을 90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월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그 강도는 그리 높지 않다. 현재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상호관세 정책이다. 2월 13일 트럼프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해당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미국의 동맹국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

NGO 칼럼



수수(윤혜경)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2030 여성들이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민중가요에서 K-POP으로, 집회의 문화와 환경을 바꾸는 주역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곳곳에서 들 수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들의 현장 뉴스 화면만 보더라도 응원봉과 가지각색 깃발의 거대한 물결을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집회 현장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음악과 소품을 넘어, 개인이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다른 이들과 연대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개인이 집회 현장 근처 식당이나 카페 등에 선결제하고 집회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SNS에 알렸다. 나아가 몇몇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커피차를 집회 현장에 보내고, 직접 따뜻한 음식을 가져와 나누고, 난방버스를 대절해 사람들이 강추위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와 함께 참여할 양육자들이 기저귀를 편히 갈 수 있도록 '키즈 버스'를 대절하기도 했다.

또한 집회 참여자 개개인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많은 집회

중국과 미국의 대타협은 가능한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미국의 대중 압박이 이미 크게 강화되어 있어 새로운 압박이나 제재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과도한 대중 추가 관세는 가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무역 다변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경제보다 미국경제에 더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중 기술봉쇄도 딥테크 충격 등으로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반발에 따른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선택지는 더 줄어들다. 트럼프는 효과가 불확실한 대중 공세를 강화하기보다 미국 우선주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가자 문제,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이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공간을 넓히려려고 한다. 예를 들어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해 기업의 결정이라는 식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2020년 틱톡의 인공지능 기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수출 금지 기술에 포함시켜 틱톡 매각의 가능성을 차단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태도이다.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에 상응조치를 취했지만 그 범위를 일부 영역(미국산 LNG,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 등)에 대한 10~15%의 추가관세 부과)으로 한정했다. 제재 압력에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새로운 무역전쟁은 바라지 않는다는 의지도 표명한 셈이다.

물론 국가 이익, 헤게모니 경쟁, 이념 등의 문제가 북

잡하게 뒤얽혀 있는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트럼프가 대중 공세를 언제라도 강화할 수 있다. 지금의 움직임은 힘의 우위를 강화한 후 중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등이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중국도 이를 우려하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당장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중 대타협의 가능성도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와는 달리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다면 중국은 틱톡 문제 등과 관련해 양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중러의 핵군축, 특히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제약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중 관계는 안정될 수 있다.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다. 올해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에 한국 경주에서 진행될 예정인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전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계엄령의 명분으로 중국의 선거 개입을 운운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행태이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급하다.

2030 여성과 집회문화의 변화

참여자들이 발원대 위에 올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신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를 삶의 언어로 분출하는 그 발원 하나하나가 모두 감동적이었다. 이들의 언어가 힘이 있는 것은 자신의 약자성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먼저 싸워온 선배 세대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데 있다. 즉, 다른 사람과 연대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말에 그치지 않았다. 남태평양에서 전봉준 투쟁단의 트레터가 경찰 차벽에 막혔을 때 많은 여성이 남태평양으로 몰려갔다. 밤새 강추위와 싸우면서도 농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차벽이 뚫릴 때까지 함께 했다. 이 연대의 물결은 나아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이동권 시위로, 급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화청지회의 한화그룹 분사 앞 농성장 연대로, 한국유타 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위한 도보 행진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의 참여자는 성별이나 나이가 다양하여 2030 여성의 참여가 서울처럼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다만 이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하던 여성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응원봉이나 자신의 깃발을 들고 오기도 했다. 매주 같은 깃발을 들고 참여하는 여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개별 여성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데에는 집회 문화가 이전보다 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번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평등한 집회를 위한 약속문을 만들어 화면에 띄우고, 수어 통

역사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음료나 음식을 나누는 부스에서도 일회용 컵에서 대화용 컵 사용으로 변화했다. 특히 13차 총궐기대회에서는 휠체어 이용인이 발언을 위해 무대에 올랐고 이를 위해 경사도가 설치되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전일빌딩에 설치되기도 했다.

지난 2월 15일은 광주에서 극우 집회가 열린다고 예고된 날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광주를 응원하기 위해 왔고, 광주시민들도 거리로 나오며 2만여 명이 금남로를 꽉 채웠다. 지난 15일 집회는 성별, 나이,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다채로운 응원봉으로 집회 현상이 수놓였고, 각 단체와 개인의 여러 깃발이 하늘에서 펠럭였다. 다양한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로 결의를 다지고 연대를 외쳤다.

이러한 집회 문화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24년 연말부터 시작해 2025년 2월에 이른 현재까지, 점점 변화해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광장에 집회를 만든 시민사회 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차별적 요소에 문제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온 2030 여성들의 몫이 크다.

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어도, 윤석열이 구속되었어도 집회는 계속되었다. 앞으로도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집회 안에서 누군가 배제되지 않는 집회, 평등한 집회, 연대의 장이 되는 집회를 만들어내며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

전남의 MICE 산업 전략, 차별화 된 콘텐츠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남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지역 특산물 등 대도시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독창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전남도 MICE 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남이 추진하는 MICE 산업의 문제는 특정 도시, 즉 여수나 목포 같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MICE 산업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편중되는 것이 우리나라 MICE 산업의 한계라면, 전남 내부에서도 일부 도시만 발전하는 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MICE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도내 전역으로 배분될 수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더욱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강진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닌 지역으로, 전남에서 MICE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고려청자의 보고장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국제 도예 컨퍼런스나 국내 도예 관련 교류회를 유치할 수 있고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라는 역사성을 살려 인문학 포럼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또한 강진 한정식을 중심으로 한 미식(가스트로노미) 행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미식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남도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가우도와 연계한 해양 레저·웰니스 MICE,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기술 교류 행사 등 강진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MICE 산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대형 컨벤션 중심

MICE가 아니라 강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콘텐츠 중심의 MICE 산업 발전 방향을 전남 전례로 확장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표는 근대문화유산과 해양 관광을 연계한 역사·문화 MICE에 적합하며, 나누는 빛가람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스마트 산업 관련 컨퍼런스를 유치할 수 있다. 장성은 황룡강과 변백림을 활용한 생태·웰니스 MICE가 가능하고, 광양은 철강산업과 연계한 기술·산업 MICE에 강점이 있다. 곡성은 기차마을과 슬로시티 콘셉트를 살린 체험형 관광 MICE를 추진할 수 있으며, 영광은 한빛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에너지·안전 관련 MICE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전남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MICE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개발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남이 MICE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정 도시에만 집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으로 균형 있게 배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MICE 콘텐츠가 활성화되어 경쟁력을 발휘한다면, 상대적으로 시설과 접근성 등이 불리한 전남의 MICE 산업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구조를 넘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남이 MICE 산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社說

활력 잃은 석화산단에 여수경제 연쇄 위기

여수지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여수산단의 석유 화학 업체들의 경영난이 골목 상권으로까지 연쇄적으로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여수산단 석화 기업들의 경영난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소비 위축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빚어진 현상이다. 여수산단의 4대 대기업 석화 업체 가운데 3곳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만 9000억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지속할 정도다.

이들 대기업의 경영난은 곧바로 협력업체의 일손감소로 이어지고 산단이 활력을 잃으면서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골목 상권의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에 따르면 8000여명에 달하던 플랜트 건설 노동자가 지금은 3000여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하니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산단 노동자들이 사라지면서 음식점은

가점 휴업 상태이고 활황기 매출로 투자한 숙박업 자영업자들은 파산 직전으로 물리고 있다.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든 곳이 부지기수이고 여수산단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흥국상가 점포의 40% 가량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문제는 석유화학 업종이 단시일내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다. 공급 과잉이 2028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전환형·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자치단체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처방으로라도 몰락 직전의 여수 경제를 살려놓고 보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는 지역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호응하기 바란다.

대형화재 취약한 전통시장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4일 새벽 1시께 광주 광산구 송정 5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상점 204칸 가운데 38칸(상점 17곳)을 태우고 50분 만에 진화됐으나 4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빠른 시간 내에 불이 확산된 까닭은 점포들끼리 밀집돼 있는데다 상점 지붕 재료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가연성 소재인 스티로폼을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해 화재 규모를 키우게 된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역시 불과 30여분만에 220여개 상가를 전소시켰다. 상가 전체로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역시 샌드위치 패널이 지목됐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와의 경쟁 속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축제 개최 등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소비자와 상인 간

에 느끼는 '경감'은 전통시장 만의 매력이다.

생계 터전인 켄터미로 변한 영세 상인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광주 광산구는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상인 가운데 7명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한다.

노후한 상가들이 밀집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전통시장 개선사업과 건축법 등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해 샌드위치 패널 등을 불연성 소재로 교체해야 한다.

전통시장 구조물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복구사업을 통해 송정 5일시장이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탄생하길 기대한다.

無等鼓

'4당 5락'(四黨五落). 아마도 대학 본고사가 치러지던 시절을 보낸 세대에게 익숙한 표현일 것이다. 국어사전은 "하루 4시간만 잠자면서 공부하면 대학 입학에 성공하고, 5시간 이상 잠자면 대학 입학에 실패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정말로 누군가는 얼마나 의자에 앉아 공부를 했는지 엉덩이가 짓물렀다는 전설적인 얘기도 전해들었다. 대다수의 청년들도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 또한 지겹도록 들었을 것이다.

앉아서 보낸 시간

1980년대 고교 교육 과정은 오로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학생의 잠재된 재능을 찾아보려는 시도 따위는 당초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공부에 관심이 없든 없든 간에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인 교과과정에 끌려가야 했다. 동아리 활동을 위한 특별활동 시간 또한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시에 필요한 수업으로 대체됐다. 그러한 압박 속에서 입시에 목매인 학생들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수험서를 거듭 들여다보아야 했다.

그렇다면 요즘 중·고교생들 사정은 어떨까. 지금도 부모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질병관리청의 '2017~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이 하루에 앉아서 보낸 시간(2023년 기준)은 주중 11.02시간, 주말 9.21시간으로 나타났다. 학습 목적의 앉아있는 시간이 줄고 학습이외 목적의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청소년의 여가시간마저 좌식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 '학교기반의 청소년 비만예방정책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청소년 신체 활동 활성화 정책개선 단·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제 청소년들을 책·결상에 잡아앉히는 교육정책을 과감히 바꾸는 것은 무리일까. 학교수업을 마치고도 밤늦게 학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학생들의 하루는 중년들의 학창시절보다 더욱 가혹하기만 하다. 학생들을 '책상머리'에서 벗어나게 하라. 천편 일률적인 청소년들로 만들지 말자. 책·결상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맘 흘리며 운동하고,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청소년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싶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기고



차영수  
전남도의원

지역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성장한다. MICE 산업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만든다. MICE란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의 약자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연계된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을 통칭하는 단어이다. MICE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외부 방문객 증가로 숙박, 교통, 식음료, 쇼핑,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일반 관광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액이 높아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MICE는 비용 대비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도시 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도시들은 MICE 산업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적 산업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남의 MICE 산업은 아직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컨벤션 센터나 국제회의 인프라가 제한적이고, 글로벌 행사 유치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MICE 산업은 단순한 시설 경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역의 특색을 살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